

홍살림
HEUKSALIM



청년 농부의 희망이 자라난다

홍살림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 입학식

‘귀농의 꿈을 단단하게 키워 가세요.’

홍살림연구소는 4월 22일 오전 11시 홍살림토종농장에서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 입학식을 치렀다. 입학식에는 교육생 5명을 비롯해 이태근 홍살림 회장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기반 없는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귀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6개월간 합숙과정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은 물론, 지역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이태근 홍살림 회장은 “귀농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 대단

한 결심을 했다”며 “이번 교육과정이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조급해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을 바라보기를 당부했다. 이어 강승희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의 방향이 유기농업의 기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설명했다. 교육과정 설명이 끝난 후에는 교육생들의 자기소개와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마련한 것으로 홍살림연구소는 올해 새롭게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홍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1시 홍살림토종농장에서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 입학식을 치렀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 5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됐다.



홍살림은 지난 4월 5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 위치한 국립 달랏대학교에 흙 분석 및 미생물 연구소 설립과 함께 업무 협력 및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홍살림, 베트남에 미생물연구소 설립

홍살림은 지난 4월 5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 위치한 국립 달랏대학교에 흙 분석 및 미생물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달랏대학교에서 진행된 업무 협력 및 현판식 행사에는 달랏시 부시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달랏대학교 부총장 및 농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Dr. Lan 농학과 학과장은 홍살림이 한국에서 30여년 동안 쌓아온 흙분석과 농업 컨설팅, 미생물 연구

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전수를 부탁하였으며, 유기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김행숙 홍살림 대표는 달랏대학교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달랏시가 베트남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토양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가나 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더라도

분석 결과에 따른 농법 컨설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물별 시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토양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토양 상태를 알지못해 과도한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 내 양분 불균형이 매우 심한 현실이다. 홍살림은 현지 전문 인력들과 공동 연구하여 베트남 작물별 시비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농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연제거형 온실차광 코팅제

뜨거운 여름철 아직도 고온장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온실 온도를 확! 내려주고 생산량을 쑥! 올려줍니다.
저렴한 비용, 단 1회 차광코팅으로 여름철 하우스 고온 해결



- 한 번 시공으로 3~4°C 온도 하강 효과
- 선택적 광차단으로 작물 생육 극대화 효과
- 광조절 코팅제와 설계기법을 도입한 국내 최초 고기능성 온실 차광제



홍살림
HEUKSALIM
www.heuksalim.co.kr

구입/상담문의

(주)홍살림 043-216-2958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사진으로 보는 4월의 활동



고성군 산불피해 농민 돕기 흙살림균배양체 10톤 지원

흙살림은 지난 4월 16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퇴비(흙살림 균배양체) 10톤을 지원했다. 4월초 발생한 큰 산불로 인해 고성군을 비롯해 속초, 강릉 등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본격적인 영농 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지를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에 흙살림은 이 지역 농부들이 힘을 내서 삶의 터전인 논과 밭을 가꿀 수 있도록 퇴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재민 농부들이 퇴비를 통해 땅을 살리고 그 힘으로 역경도 극복해나가기를 응원하였다.



바이오기업 플패키지 지원 협약식

흙살림은 지난 4월 4일 청주상공회의소와 바이오기업 플패키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오는 7월 30일까지 해외마케팅 지원과 마케팅툴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상호 협약하게 됐다. 이는 20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친환경농업 공동연구 등 충북농기원과 협약식

흙살림은 4월 30일 충북도농업기술원 창조농업실에서 충북도농업기술원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유기농 특화도인 충북의 유기농 발전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도 협력하게 될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송용섭 충북도농업기술원장은 “충북 지역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상호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흙살림과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토양 및 퇴·액비 분석 및 친환경 농업기술과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공동연구, 토종종자 유전자원 보존·활용 및 유기농업 교육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대신택배 산막이옛길 등산 동행

흙살림은 지난 4월 21일 대신택배 임직원들의 산막이옛길 봄산행에 동참했다. 흙살림 대표 농산물인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와 친환경 오이를 함께 준비해서 산행의 힘든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으로 준비해 인기를 끌었다.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16>

■ **퇴비퇴비의 제조와 사용할 때 주의사항**
목재에는 식물의 발아나 성장을 방해하는 유기화합물인 탄닌과 송진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독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60~65℃ 이상 1개월 넘게 발효시켜야 불용성화하거나 분해된다. 따라서 퇴비퇴비는 반드시 고온에서 발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비퇴비는 탄질률이 높아 작물을 재배할 때 질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할 경우 조금만 보충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퇴비퇴비를 3개월 이상 장기간 발효시키고 후숙 단계를 거치면, 최초에 퇴적할 때 60~65% 정도였던 수분이 점차 줄어든다. 퇴비퇴비가 수분 함량이 30% 미만으로 건조되면 미생물이 활동을 중지하는데, 이런 상태로 토양에 놓으면 상당 기간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퇴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발효할 때 생기는 미생물들의 사체가 퇴비퇴비 입자에 붙어 말라 굳어서 생긴 단백질의 변성 때문이다. 이런 퇴비를 토양에 주면 일시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퇴비 효과를 곧바로 볼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퇴비 제조과정에서 뒤집을 때마다 수분을 체크해 부족하면 보충해주어 함유량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렁이가 살 수 있어야 잘 발효된 퇴비

과연 퇴비가 잘 발효되었는지 육안이나 손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렵지만,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 **화학적 방법** - 퇴비의 산도를 측정할 때 부속이 완료되면 pH의 수치가 내려가 대체로 안정된 현상(pH 6~7)을 보인다.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도 약해진다. 미숙퇴비는 대개 pH가 높고 암모니아 냄새도 강하다.

▲ **물리적 방법** - 돈분의 경우 퇴비에 있는 돼지털을 잡아당겨 판별하는데, 부속이 진행된 것일수록 쉽게 끊어진다. 퇴비퇴비의 경우에는 손으로 비벼 판별하는데 부속이 진행될수록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또 구멍이 없는 비닐봉지에 퇴비를 넣고 묶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며칠 두고 관찰하면, 미숙된 퇴비일 경우 가스가 나와 부풀어 오른다.

▲ **생물적 방법** - 지렁이가 퇴비에 들어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퇴비 가운데 그런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 몇몇 제품을 땅에 쏟아놓고 거적이나 마대를 덮어 물을 한 양동이씩 부은 뒤 7~10일 정도 놔두면, 퇴비 주변의 수분이 있는 곳에 지렁이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효가 잘된 퇴비에는 가스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속으로 지렁이가 파고 들어가지지만, 미숙된 퇴비에는 가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나마 퇴비더미 근처에 지렁이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괜찮은 퇴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 **모종 키우기** - 퇴비와 마사(굵은 입자)를 50:50으로 혼합하여 포트에 넣고 물만 주어 기르면, 부속 정도가 다른 퇴비라도 2주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2주에서 1개월 정도 지나면 미숙퇴비를 사용한 포트는 아래쪽 잎이 지거나 누렇게 색이 변하고 성장이 멈춘다. 완숙된 퇴비일수록 분발에 정식할 정도로 충실히 자란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목투싹

작물병해관리용자재

- 곰팡이 병은 모두~~싹!!!!
- 농자재 사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다기능 병충해 방제제!
- 미세가공으로 나노화된 유황에 흙살림 특허 미생물 기술까지 결합된 살균제!!
- 제독된 유황으로 약해 감소! 부식 감소! 침투 증대! 확산 증대!
- 식물체 내 물질순환에 도움을 주는 유황 공급으로 생육 및 품질 향상은 덤!!!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6-16
- 사용 방법 : 25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 병해 : 잎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무름병, 흑색썩음균핵병, 흰가루병, 뿌리혹병, 탄저병,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흙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 장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흙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조선시대 청태는 익기 전 삶아먹는 풋콩 (靑太)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7>

토종콩<4> 베틀콩, 오가피콩, 푸르대콩

■ 맛있는 풋콩
지금은 국어사전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말이지만, 맛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맛이 배틀하다 / 배틀하다”란 표현이 있다. 호서, 호남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맛에 관련된 단어는 현재 고령의 노인들만 일부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되었다.

200여 년 전 서적인 임원경제지에 “배탈벼”가 있다. 이 책에서는 ‘배탈’을 ‘냄새’로 뜻을 풀고 있지만 중세어에서의 “배탈”이란 말은 냄새뿐만 아니라 맛에 관련하여 두루 사용된 듯싶다.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을 자극하는, 밥 지을 때 나는 냄새와 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전에 배탈벼가 있었다면 배탈콩은 과연 없었을까. 배탈콩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맛이었을까. 2018년 전국씨앗도서관 주관으로 수집한 당진지역 토종콩 중에서 “베틀콩”이 있다. 이 콩은 갈색무늬가 있는 중간크기로 콩나물 콩으로도 활용된다고 한다. 수집 당시 채록을 보면 “풋콩을 까놓으면 집나간 머느리가 돌아온다. 베틀한 맛이 난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 밖에서도 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베틀한 맛이라는 것이 쌀향기인지 콩향기인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집나간 머느리를 불러올 정도로 구미를 당겼던 정말로 맛있는 콩이었던 것만은 사실일 듯싶다. 좀 더 나아가 본다면, 배고팠던 시절에 맛있는 풋콩을 일반적으로 <배탈콩/베틀콩>으로 불려왔을 수도 있다. 풋콩에는

자당에 의한 단맛과 글루탐산과 알라닌 등에 의한 고소한 맛이 다른 콩보다 더 있기 때문에, 입술이 새까맣게 숯검정이 되는 줄 뻘히 알면서도 풋콩을 구워먹었던 콩서리 맛이야말로 배고픈 시절의 배틀한 맛 그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풋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에서의 인기만은 못하다. 일본에서 안주용으로 큰 인기가 있는 풋콩은 가지에 꼬투리가 매달린 채로 유통되기 때문에 한자로 지두(가지콩, 枝豆)라고 부른다.

臥叱多太 【약대콩. 꼬투리는 흑청색, 종자는 흑적색, 풋콩(靑太)일 때 가장 무르다(맛있다).】 [금양잡록, 강희맹(1424~1483), 조선전기]

倭大豆 【약대콩. 깍지는 푸르고 콩은 검붉은색으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 익지 않았을 때 삶아먹으면 매우 맛이 좋다. 민간에서는 靑太라고 하는데, 사투리로 大豆를 太라고 한다.】 [임원경제지, 서유구(1764~1845), 조선 후기]

오조이삭 청대콩이 어느 사이 익었구나. [농가월령가 6월령, 정학유(1786년 ~ 1855년), 조선 후기]

조선시대 세 문헌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풋콩을 한자 “청태, 靑太”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전기 농서 금양잡록의 청태 靑太는 문맥상 풋콩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의 약대콩 설명부분도 완전히 익기 전

에 꼬투리채로 삶아먹는 콩을 “청태 靑太”라고 했다. 서유구와 동시대인인 정학유의 한글로 쓰인 농가월령가 6월령에 나오는 구절에 “청대콩”이 등장한다. 음력 6월은 폭폭 찌는 한여름인지라 이때 볼 수 있는 것은 마른 콩이 아니라 빨리익는 풋콩뿐이다. 이를 보면 200여 년 전 풋콩을 ‘청태’라고도 ‘청대콩’이라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풋콩 활용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우리 식문화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풋콩이 활용된 가공식품으로는 <청태두부, 청태장, 청태자반, 송편> 등에서 확인된다. 청태두부를 별미두부로 부르는 것을 보면 일 년 중에서도 풋콩이 나올 때만 만들어 먹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며, 아울러 청태장과 청태자반도 별미가 아니었을까 싶다.

세월이 흐른 현대에 와서, 청태라는 말과 글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풋콩을 의미하기 보다는 말랐을 때 녹색인 큰 콩(푸르대콩)을 주로 의미한다.

풋콩이 갖는 미덕은 조생종이어야 한다. 조생종 콩은 빨리 익는 콩으로 울콩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임원경제지에는 음력 6월에 먹을 수 있다는 <유월콩>으로 등장한다. 음력 8월 추석에 송편의 소로 이용되는 콩도 조생종 ~ 중생종이어야 하며 또한 맛이 좋아야 한다. 이때 찜 익는 울콩 중에서 검붉은 풋콩이 이용될 수도 있다. 식물학적으로 신기한 토종콩 중에는 잎이 5장인 “오가피콩”이 있는데, 콩 껍질이 검고 빨리 익는 밤콩이다. 강화도 수집당시 설명을 보면 “맛이 좋아서 오가피향이 난다”고도 했다. 오가피콩의



다양한 푸르대콩(청태) : 크기, 모양, 색깔의 농담, 열피 정도 등 제 각각 개성을 보인다.

단점은 콩깍지가 너무 잘 터져서 수확기를 놓치면 거두어둘 일개 별로 없는 것이다. 고농서에 나온 껍질이 검붉은 “약대콩”이 바로 이 “오가피콩”처럼 검은색 울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 푸르대콩을 찾아서
푸르대콩은 “푸르다(綠)”라는 형용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겠다. 푸르대콩(푸르데콩)은 일반적으로 콩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분류할 때, 껍질이 푸른색의 큰 콩을 말한다. 푸르데콩을 한자로 옮기면 “청태, 靑太”가 될 수도 있고 “청대두, 靑大豆”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한문과 한글이 결합되어 “靑대콩”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파랑콩>으로 부르는 곳도 있다. 생활 속에서 이들 단어사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풋콩을 푸르데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하다. 농민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때론 “청서리태”, “옛날찰콩”으로 부르는 곳도 있다.

靑大豆 【파랑콩. 색이 파래서 탐스럽다.】 색깔로서 구분되는 콩이름이다. [임원경제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에서는 콩 껍질이 파란색을 한글로 <푸르대콩>이 아니라 <파랑콩>으로 기록하였다.

갖은 도태 심을적에 / 울콩 불콩에 청대콩
만리타국에 강낭콩 / 도관포수는 검정콩
이팔청춘 푸르대콩 / 방정맞고 재산이 없는
주년이콩도 심으시고 [음성군 고사소리]

1990년대 채록된 위 음성군 고사소리에서 보면 비슷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청대콩은 풋콩을 의미하고, 푸르대콩은 안팎이 모두 푸른 색깔의 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알이 굵고 껍질이 갈라져있는 푸르데콩도 있는데, 이 토종은 물을 빨리 흡수하여 밥밑콩 용도로도 적합했을 것이다. 인절미의 고소한 맛을 내는 고물용으로도 푸르대콩(청태)이 최고였다는 소리를 어른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푸른색 콩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푸르대콩 껍질의 녹색은 색소라기보다는 광합성 할 때의 엽록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정콩이나 갈색콩 등과 달리 녹색콩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어느새 탈색되어 황태로 오인될 수 있다.

글 윤성희 토종연구소 소장



당진에서 수집된 베틀콩(좌). 고동색 종피가 특징적이다. 일반적인 백태(우) 보다 작은 중소형의 콩이다.



오가피콩. (1 줄기. 2 잎(5복엽). 3 종자)

“병해충 왕성·소멸 시기 잘 알아야 한다”



이정갑(대구시 친환경연구회 회장)·이차남 부부가 깻잎을 수확하고 있다.

생산농가 - 이정갑(대구, 깻잎)

“올 해 농사 잘 좀 지어봐라. 돈 좀 사야지”(‘돈을 사다’라는 표현은 시장에 내다 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정갑 대구시 친환경연구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덕담을 건넨다.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접어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정갑 회장은 19년 전 유기농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의 전문가다. 지금은 주로 깻잎을 재배하고 있다. 썩갓과 얼갈이, 열무, 쪽파 등은 대구시 로컬푸드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만 조금 키운다.

“인증받은 초창기에는 지금같이 좋은 친환경농업 자재들이 없어서 힘들었다”며 당시에 할미꽃(백두옹) 뿌리나 고삼뿌리를 비롯해 천연재료를 소주나 막걸리 발효액에 담가 사용한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하지만 효과가 미비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방제일지를 수시로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어느 시기에 어느 벌레가 왕성해지고, 병이 생기는지를 꿰뚫어 봤다. “엄청 번성하던 진딧물도 장마만 지나면 다 사라진다”며 작물별로 상태를 얼른얼른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해마다 나타나는 병과 충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은 필수다.

진딧물 발생하면 ‘청달래+잘들어총’ 상태 따라 희석배수 조절해 사용 효과

깻잎의 경우 진딧물이 조금 발견되면 흠살림 ‘청달래’와 ‘잘들어총’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특히 “내성이 빨리 안 생겨서 장기간 쓸 수 있어 좋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혹시나 방제 시기를 조금 놓친 경우에는 흠살림 ‘충식이’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이런 방제약은 꼭 고압호수를 사용해 뿌린다. 그래야지만 벌레들에 잘 묻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제를 잘 한 덕분에 농사가 잘 되면 주위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건 아닌지 묻는 경우가 많다. 이 회장은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주위 농부들에게도 예찰과 자재 사용법을 기꺼이 전달하지만 “왜 나는 효과가 없냐?”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벌레와 병의 상태에 따른 자재 농도 조절이다. “권장 희석배율이 500배, 1000배이지만 꼭 이대로만 사용 해선 안된다. 상태에 따라 가감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믿고 쓸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년 친환경 목록 공시된 자재들이 수십 건 올라왔다 내려간다.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다.

대구에 친환경연구회가 구성되고 활동해온 지 수십 년, 이 회장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대구 친환경농업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흠살림이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이 성장해 가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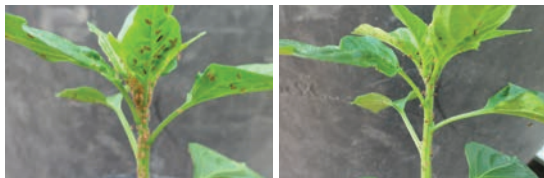
이정갑 회장은 “병은 예고없이 온다”며 세심한 예찰을 강조했다. 깻잎의 경우 건드리면 툭툭 줄기가 떨어지는 갈록병에 ‘토리’와 흠살림 ‘모두씩’을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잘들어총

작물 총해 관리용 자재



-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들어는 여기까지!!!
- Level up! 최상의 상태로 재 탄생!!
- 지긋지긋한 총채벌레, 이제는 잘들어총으로 해결!!
- 잔류농약은 당연히 불검출!



진딧물 처리 전

진딧물 처리 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5-007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염면 살포
- 대상 해충 : 진딧물, 총채벌레, 벼멸구

식물추출물

씩들어

작물 총해 관리용 자재

- 초강력! 살충제 등장!!
- 그 무엇보다도 비교 불가!
- 싹! 듣는 흠살림 최신 살충제
- 마늘유 함유로 살충 효과는 기본!
- 해충 기피 효과는 보너스로 1+!!!



진딧물, 응애 효과 사진

잎벌레 효과 사진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5-047
- 사용 방법 : 1000배 희석액 염면 살포
- 대상 해충 : 진딧물, 응애, 잎벌레, 깍지벌레, 선녀벌레, 가루이류

매주 일정 생산량 출하 가능하도록 연습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농장<7>

하우스 나눠서 10일 간격으로 파종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마른 대지도 달아올라 초록이 움트기 시작한다. 들녘의 부지런한 농부들은 아직 고추 모종을 심으려면 멀었음에도 한 톨의 들풀 씨앗이라도 떨어질까 열심히 기계로 밭을 갈아엎는다. 온도가 오르면서 더 이상 춥지 않고, 덥지도 않은 일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다. 블루베리에 거름도 주고 톱밥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적당한 따뜻함과 상쾌한 바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4월은 농장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다. 먼저,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유기농 기공사 자격증 준비를 해 왔는데, 얼마 전 실기 합격 결과가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기사 자격증도 도전할 수 있다

하여 천천히 공부해 볼까 한다. 유기농기공사 말고도 종자기공사, 조경기공사 등 농업분야의 자격증을 하나씩 도전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실기 시험을 치르면서도 농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농기공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신기했다. 대부분의 시험장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어 인터넷 문제로 둘째 날 접수를 신청했던 나에게는 남은 선택지는 '제주도'와 '전남 강진' 시험장밖에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강진군'까지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올 봄부터는 지역 귀농귀촌학교 등을 통해 단체 방문 교육생들의 농장 방문을 시작하게



따뜻해진 봄날의 농작업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되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새내기 농부라 아직 '작물'이나 '농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농장을 만들고 집을 지으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투자, 허가, 시공 과정, 어려웠던 점, 관련 법률 지식이나 노하우가 귀농, 귀촌이나 귀향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

으면 한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참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간 경험이 지금 와서 큰 자산이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허브의 출하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 꽤나 진지한 목표가 생겼다. 매

주 단위로 일정하게 생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재배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매주 생산되는 양은 작지만 땅을 어떻게 나누어서 몇 일 간격으로 파종해야 일정한 크기와 상품성을 가진 생산물을 끊임없이 수확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하우스 한 동을 6등분으로 나누고 10일 간격으로 루꼴라와 고수를 파종해보고 있다. 같은 땅인데 밭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계가 없어 임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해 스케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다행히 4월에는 루꼴라의 크기가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어느 정도 고르게 출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 조만간 임대 면적을 좀 더 늘려 다른 종류의 허브들을 함께 시작할 계획인데, 또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마주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겠다.

글 이수진 농부

아이들이 즐겁게 딸기체험할 순 없을까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7>

연령별 특성 맞추어 적은 수로 운영

귀농을 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직거래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어떻게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에 딸기체험을 시작했다.

봄에는 딸기 양도 늘어가기 때문에 직거래뿐 아니라 판로를 다양하게 활용 해야 한다. 다행히 딸기체험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아 우리 소득에도 많은 보탬이 되는데 3월은 가족체험을 하고, 4월은 어린이집 단체체험이 대부분이다. 딸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하고, "딸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는 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때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 규칙은 조금씩 늘어나기 일쑤다.

딸기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며 딸기를 먹는 즐거움도 좋지만, 딸기가 자라기까지

의 과정과 농부의 손길이 담겨 있는 먹거리에 대해 존중할 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딸기밭에서 자율적으로 딸기 체험을 진행하기에 규칙을 지키고, 서로간의 예의로서 체험을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체험은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딸기 이야기나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소통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며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고 연례행사처럼 딸기체험을 오곤 한다.

그러나 단체 딸기체험을 하다 보면 고민이 많다. 특히나 어린이집 단체체험을 3년 정도 해보니 아쉬움이 많다. 처음엔 남들 하는대로 단체로 들어가 먹는 체험을 하다보니 아이들은 들떠 있고, 선생님이 따라 아이들의 행동을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딸기밭에 먹다 남은 꼭지며, 딸기를 따서 먹지 않고 딸기



농부의 손길과 먹을거리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즐거운 딸기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밭 속에 몰래 숨겨놓기도 하고, 딸기 따다 떨어뜨리고 밟아 딸기물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무질서한 딸기밭을 보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란 생각에 너무 속상하기 이룰데 없다. 아이들은 무척 좋아하지만 어린이집 체험은 이게 맞는지 자꾸 생각하게 됐고 보조선생님이 몇 분 더 오시면 좀 더 나은 딸기체험이 될 듯한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그럴만한 인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린이집 단체체험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올해

는 변화를 주고자 했다.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딸기체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연령이 낮을수록 적은 수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선생님도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아 수월하고, 그때그때 아이들과 공감하며 행동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잘 따라해 줄 것이다. 올해는 3세와 4세 아이들의 체험에 변화를 주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물론 남아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조선생님이 필요한 점도 있고, 예전처럼 단체로

들어가서 딸기밭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딸기체험하는 농장의 운영을 이해하고, 농장과 서로 상생을 해야 아이들에게 좀더 질적으로 좋은 딸기체험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생님도 차분하게 아이들도 차분하게 딸기밭도 차분하게 딸기밭이 엉망인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어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글 이남연 농부

두 가지 길의 현실적 근거 2



소유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아시아적 형태와 그리스 로마적(고전고대적) 형태 그리고 게르만적 형태의 차이를 원시공동체와 더불어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小野塚知二, 『經濟史』). 원시공동체에서는 동산動産을 제외한 모든 집과 토지는 공동체의 소유이며 잉여는 제례祭禮나 잔치, 포트래치(potlatch)로 소비된다. 포트래치는 잉여의 축적을 막기 위한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환대를 말한다. 이에 비해 아시아적 형태에서는 동산과 헤레디움heredium을 사유로 할 수 있었다. 헤레디움은 세습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 한 가족이 사는 집과 택지, 그리고 그 주변의 텃밭이나 화전 등으로 개간한 땅을 포함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경지와 목지(牧地, 가축을 기르는 땅), 공유지는 공동체의 소유다. 여기에서도 제례와 포트래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늘어난 잉여를 착취하기 위한 공납과 각종 토건이나 전쟁을 위한 부역 등이 부과되었다. 그리스로마적 형태에서는 동산과 헤레디움에 더하여 경지의 일부가 사유로 되었다. 이러한 경지는 노예노동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도시국가Police가 성립하였다. 게르만적

형태는 이보다 더 나아가 모든 경지가 사유로 될 수 있었다. 여기 더하여 공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용권을 갖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아시아적 형태에서 개인은 단순한 점유자일 뿐,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없이 공동체의 소유가 공동체를 지배하였고, 그리스로마적 형태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소유와 사유가 병존하였으며 게르만적 형태에서는 공동체의 소유가 개인적 소유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는 그 이름과는 달리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와 소유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공동체의 성격과 자연조건의 차이 등에 따라, 대표적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며 비슷한 조건 속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게르만에 이르기까지 점취에 의한 소유권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는 논리적인 파악일 뿐이며 역사적으로는 이런 형태들이 공존하거나 뒤섞이거나 한 형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하는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리스로마적 형태와 게르만적 형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두 형태 모두 폭력에 의한 약탈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이는 아시아적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가 토지에 관계할 때 자연조건(온난하고 대규모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

아 분할 경작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국토가 수많은 산맥에 의해 작은 평원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조건)보다는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가 중요했다. 곧 다른 공동체가 이미 토지를 점거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거나 하는 사회적 조건이 중요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들 형태에서는 전쟁이 필연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이들 공동체를 유지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임무가 되었다. 가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이러한 임무에 따라 군사적으로 편성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시에 집합하여 일정한 군사조직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다. 다른 공동체의 토지를 약탈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힘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탈한 토지는 공동체의 직접적인 공동소유였지만 거기에 참여한 전사=시민은 전리품으로 자신의 지분을 분할 받았다. 그리스로마적 형태에서의 시민은 개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이면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는 전사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적 소유와 사적 노동의 주요한 목적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공동체와 성원의 유지에 있었다. 이는 이들의 사적 소유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서 분할 받은 것이었고 이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글 흥살림 통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미나리 농사 34년 함병요 농부



함병요·한명예 부부가 미나리를 수확해 선보이고 있다.

“싱싱한 미나리 먹어보세요”

함병요 농부는 충북 진천에서 미나리 농사만 34년째 짓고 있다. 싱싱한 미나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매일 수확한다. 그럼에도 유통기간이 길어 지면서 가끔 시든 미나리가 생긴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질소 함량을 낮추는 것이다. 미나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질소를 80% 정도 소모하도록 하여, 그 시기에 맞춰 미나리를 수확한다. 이 상태는 잎이 연한 녹색을 띠고, 다소 거친 느낌이 들 때이다. 이때 수확한 미나리는 질소가 풍부할 때보다 4~5일 정도 저장기간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 화학농약을 치지 않다보니 눈에 거머리가 많아 미나리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미나리 수확 시기에 맞추어 점차 물높이를 낮추면 미나리에 달라붙는 거머리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간혹 거머리와 함께 미나리가 집까지 배달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땐 사과산, 식초에 담가서 미나리를 씻어주면 혹시나 있을 거머리나 벌레를 제거할 수 있다. 미나리는 재배법에 따라 크게 밭미나리와 물미나리로 나눌 수 있다. 밭미나리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리고 키가 작다. 대신 미나리 특유의 향이 강하다. 줄기가 짧고 미나리는 주로 밭에서 척박하게 자란 것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그래서 향이 강하지만 다소 억세다. 물미나리는 물을 가두어서 키우므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키가 크며 부드럽다. 반면 미나리향이 밭미나리에 비해 약한 편이다. 한겨울을 자연상태로 나 한 뼘 정도로 자란 미나리를 돌미나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먹는 용도에 따라서는 탕용과 나물용으로 나뉘며 탕용은 키가 크게, 나물용은 키가 작게 키운다. 밭미나리는 3~4월에 주로 판매된다. 이후엔 억센 기운이 있어 생으로 먹기보다는 녹즙용으로 사용한다. 함병요 씨는 “앞으로는 친환경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서 기능성 미나리와 같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싶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소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지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가정의 달 5월 이벤트

소중한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자연의 품은 건강흑염소 잔액 100ml x 30포
99,000원



힘내용 10g x 30포
99,000원



유기농 야채수 150ml x 30포
30,000원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7,500원



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6,500원



친환경 토마토 3kg
14,100원



성주 유기농 명품참외
8,500원



유기농 사과 1kg
7,500원



무농약 레몬 1kg
13,000원

정기
배송

5월미니과일꾸러미

20,000원

대추방울토마토 1kg
흑토마토 800g
세척사과 4봉
유기가공토마토즙 4봉



깻잎 장아찌 120g
3,000원



명이니물 장아찌
4,900원



유기농 표고버섯(동고) 500g
10,000원



친환경 나트리버섯 200g
1,500원



이해무 명장의 전통 참물된장
9,900원



무농약 감자 1kg
5,000원



무농약 양파 500g
1,300원



무농약 애호박 1ea
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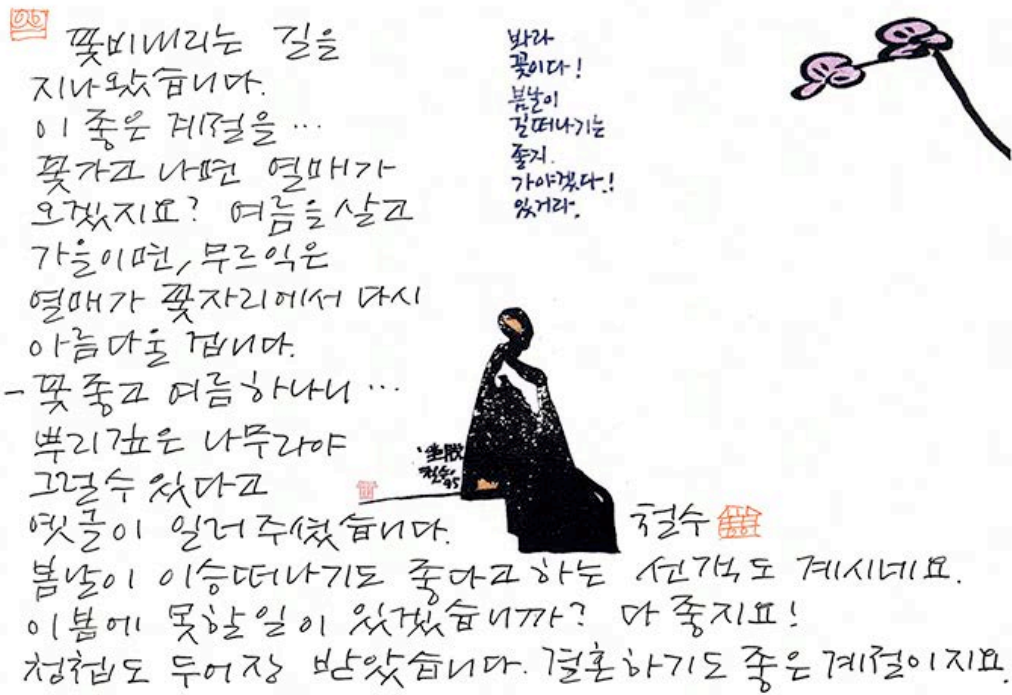
무농약 적상추 150g
1,200원



무농약 얼갈이 200g
1,500원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다 좋지요!



꽃피네리는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 죽은 계절을... 꽃가고 나면 열매가 오겠지요? 여름을 살고 가을이면, 무르익은 열매가 꽃자리에서 다시 아늑해질 겁니다. -꽃 죽고 여름 하나니... 뿌리깊은 나무라야 그늘을 잿다고 옛글이 알려주었습니다. 봄날이 이승떠나기도 죽고 하노 생각도 계시네요. 이봄에 못할일이 있겠습니까? 다 좋지요! 청첩도 두어장 받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좋은 계절이지요.

도시농업박람회 구경오세요

흙살림 참여 ... 유기농 화분 만들기 등 체험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

행사일정: 2019. 5. 23 (목) ~ 5. 26. (일) 4일간

행사장소: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시, 포럼, 체험, 경진대회 등이 열린다. 흙살림은 유기배양토인 '작은 텃밭', 이동이 편리한 화분 '그로우백', 병해충 방제 및 관리에 요긴한 '텃밭 사남매' 등 도시농업 관련 자재와 오랜 기간 수집한 다양한 토종 종자를 전시한다. 그리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모종을 나누고, 유기농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직접 식물을 키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4월 후원회원 가입

황영희(괴산), 고진환(충주), 서정수(충주)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은,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승, 김준권, 김종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중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건혁, 박기환, 박동윤, 박상일, 박승인, 박영구, 박영옥,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중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은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서위중, 석종욱, 선호근,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훈,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미영,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중화, 전홍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환, 정석조, 정영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정인, 조중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근,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우, 홍석민, 홍용기, 홍중윤, 황대호, 황인걸

(주)ACT정다운여행사, 가림다마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흙살림, (농)흙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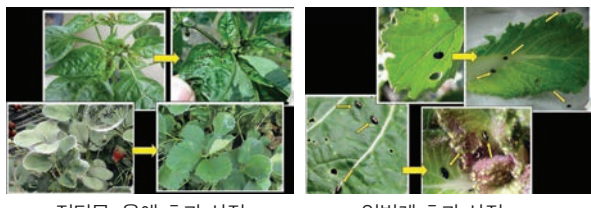
4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5일	괴산	교육	9	충북생명산업고 현장실습교육
4일	청주	협약식		바이오기업 플패키지 지원 협약식
5일	괴산	교육	25	경북농민사관학교 현장실습교육
16일	고성	행사		고성군 산불피해 농민돕기 퇴비 지원
21일	괴산	행사	50	대신택배 산막이옛길 산행 동참
22일	괴산	행사	10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 입학식
30일	청주	회의	21	흙살림-충북농업기술원 상생협력 MOU 체결

키토신 플러스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 키토산을 나노 입자로 분해한 흡수가 빠른 품질향상 제품!
- 사용 작물에서 키토산 검출!!
- 과일 당도 증가, 경도 강화로 저장성 증대!
- 성장 및 뿌리 발근 촉진
- 영양 및 칼슘 보충과 병 예방을 한 번에!!!!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3-238
- 사용 방법 : 5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및 관주처리
- 효능 효과 : 당도 증가, 칼슘 보충, 저장성 증대, 생육 및 발근 촉진, 병해 예방



천연수용성칼슘제 유기튼튼칼



- 고순도의 미세한 탄산칼슘 분말을 천연유기산과 결합시킨 속효성 천연 수용성 칼슘제입니다.
- 칼슘은 작물과 과실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며 결핍을 예방하고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 전통방식으로 장기간 숙성시킨 목초액의 천연유기산이 작물의 양분흡수율을 높여줍니다.

- 등록 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3-2-58
- 사용 방법 : 생육 중 엽면 살포
- 적용 대상 : 배추 호박,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